



EAI 여론브리핑 제21호

(엠바고 : 2008. 3. 6. 21:00 GMT, 한국시간 3.7 오전 6시)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제1차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국제비교”

[참여국가 : 16개국]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북남미 미국 멕시코

중동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집트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22개국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6개국 14,896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만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2월



[발표 주제]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 비교 “공감대 넓지만, 체감 정도는 나라마다 편차”

주제2.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약한 이유, 비토계층 vs. 여성결집 실패?

[발표계획]

차수	일시	주제	비고
1차	3월 7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19일	인권2. 중국의 대티벳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1일	인권3.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미정	5월 3일	인권4.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의 날
미정	6월 26일	인권5. 고문의 인권침해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미정	미정	인권6. 낙태	
미정	미정	현안1. 정치적 민주주의	정부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미정	미정	현안2. 정책결정과 여론	각국 정책결정에 여론의 역할
미정	미정	현안3. 국제위협과 리더십	세계 주요 지도자 평가/중동평화와 UN
미정	미정	현안4. 새로운 위협과 대응	에너지/핵폐기 국제협약/중국-티벳 문제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 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대표 : 노익상, <http://www.hrc.co.kr>) 담당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 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계층화된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 구 팀 :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이근수(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 연구지원 : Matthew J. Lauer(EAI 인턴) · Lisa Collins(EAI 인턴)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비교 :

급격하게 중요해지는 젠더 아젠다, 개선정도는 거북이 걸음마

- 양성평등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높아
- 중요성 인식 강도에서는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져 :
 - 한국은 공감대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강도는 약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성평등인식의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주관하고 동아시아 연구원(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이 참여한 16개국 국제인권 의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의 합이 16개국 평균 86%에 달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기타” 응답을 합한 결과는 14%에 불과했다.

폭넓은 공감대에 비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영국(89%) · 미국(77%) · 프랑스(75%) 등의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국민들의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과 약간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을 합하면 86%에 달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만 보면 절반수준인 43%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집트(31%), 러시아(35%)와 함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76%)이나 인도네시아(71%)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의 경우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는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그림1]

- 남녀 차별 시정은 정부의 책임 : 세계 평균 80%, 한국 87% 조사국 중 5번째

한편 세계인은 양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국 국가평균 80%가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역시 응답자의 87%가 정부개입에 찬성을 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여성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조사대상 16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남녀 평등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한국에서 양성 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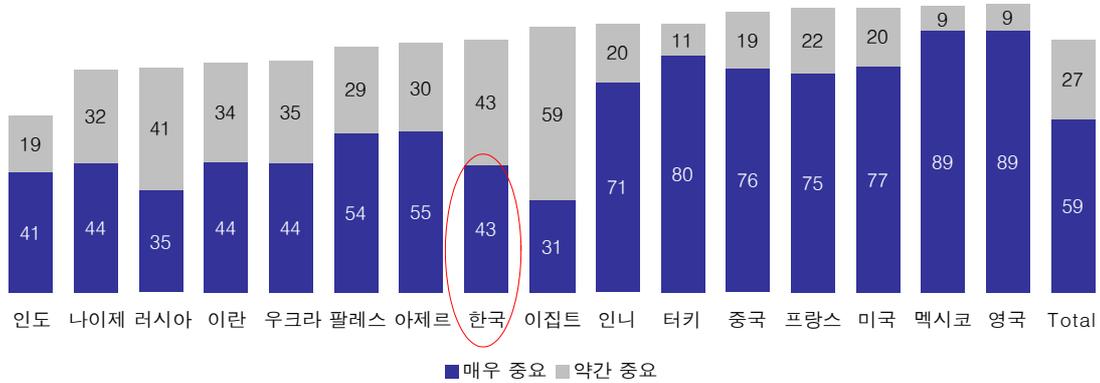
- 양성평등 인식과 함께 양성 평등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 전체 응답자 76%가 개선(매우 공평해짐+약간 공평해짐)되었다고 평가
 - 정부는 양성 불평등 해소위해 더 많은 역할 해야 54%, 충분 26%, 하지 말아야 13%,

세계인은 각 국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가? 여성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매우 공평해졌다 + 약간 공평해졌다)’는 평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체 국가 응답비율 평균 71%가 과거에 비해 여성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실감하고 있는 응답자만 보면 평균 29% 수준으로 떨어진다. 즉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러한 불만은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매우 공평해졌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멕시코(29%), 프랑스(19%), 인도네시아(25%), 한국(23%) 등에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멕시코 83%, 한국 73%, 인도네시아 69%, 프랑스 68%가 정부가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1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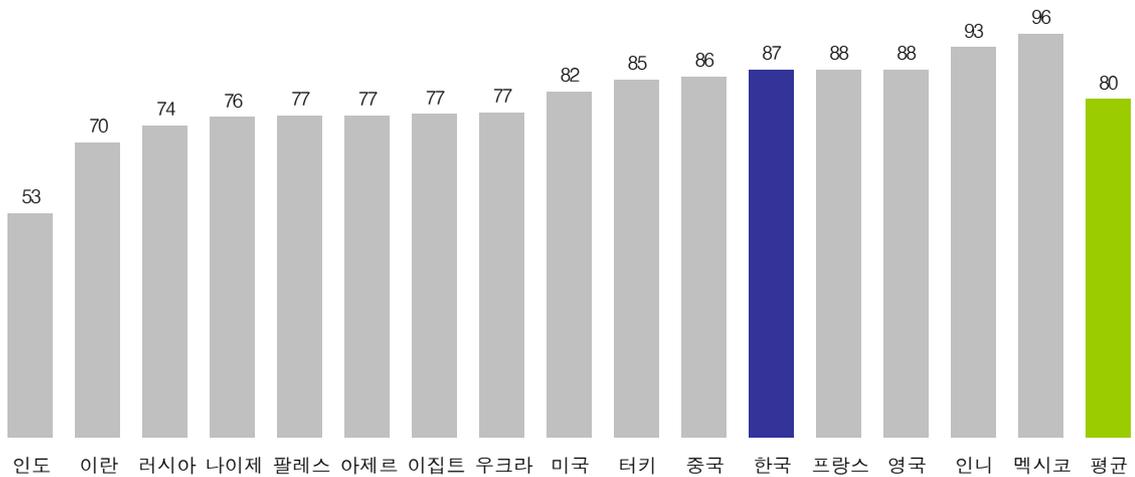
국 평균 54% 수준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그림3][그림4]

[그림1] 17개국 양성 권리 평등의 공감대와 중요성 절감 비율



- 주1. 양성 권리 평등의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약간 중요하다”로 긍정적 평가한 비율이며 중요성 절감도는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주2. 부정적 인식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포함되고, 기타 “모름/무응답”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보기가 있었지만 실제 응답비율은 미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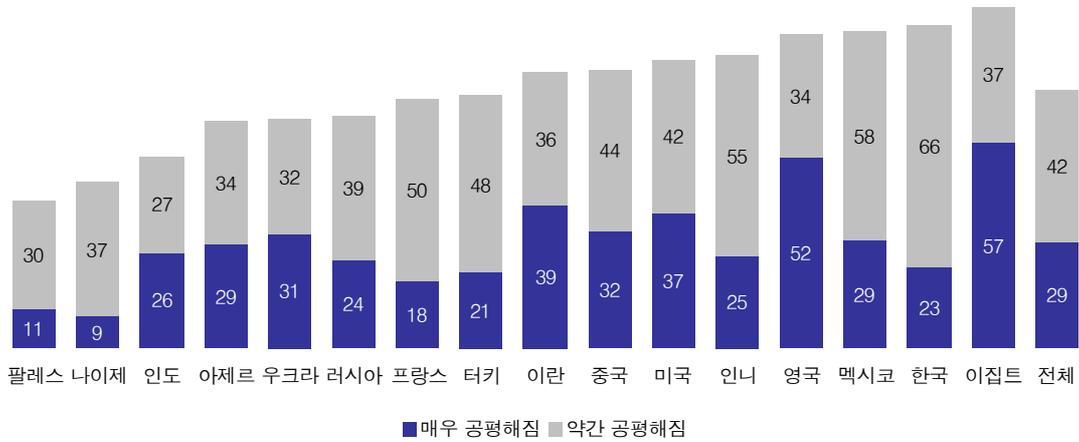
[그림2] 남녀차별 개선, 정부의 책임인가?



- 주1.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보기 중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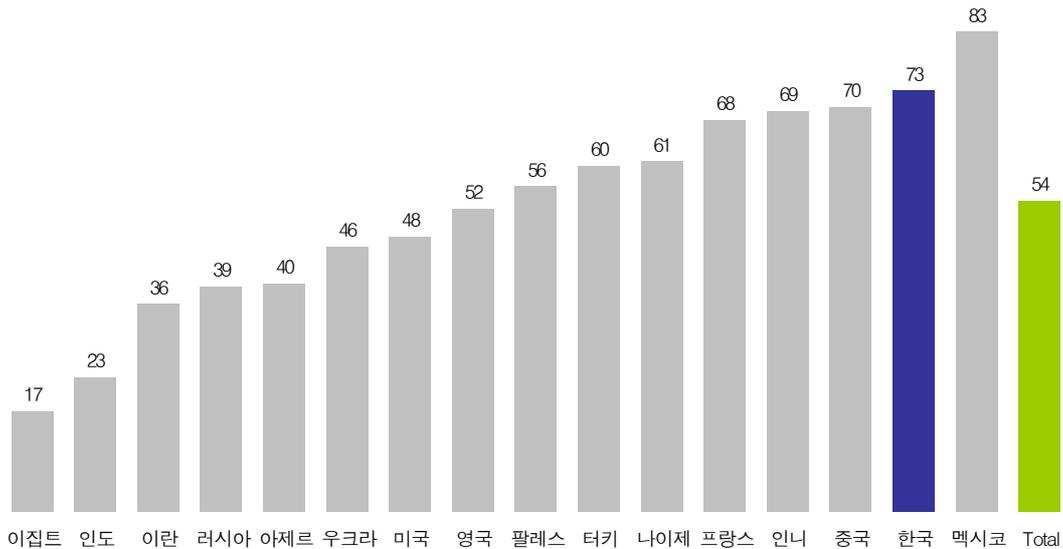


[그림3] 각국 여성 불평등 개선 정도(%)



주1. 1. 매우 공평해짐 2. 약간 공평해짐, 3. 별 차이 없다 4. 약간 불공평해짐 5. 매우 불공평해짐 중 1과 2의 응답만 표기

[그림4] 남녀차별 개선의 정부 역할 평가



주1. 1. 정부가 충분한 역할 하고 있다. 2. 정부가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3. 정부는 더 이상 역할 하지 말아야 4.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왔다 중 2번 응답

- 각국 젠더 아젠다의 사회적 압력 유형 분석 : 선도형 · 갈등형 · 예방형 · 잠복형
- 미국, 영국은 중요성 인식수준도 높고 크게 공평해지고 있다는 평가 높아
 - 한국은 중요성 인식↓, 개선 정도도 평균이하 ↓ : 잠복된 사회갈등요인
 - 인식수준에 비해 개선도 낮은 국가(프랑스 · 멕시코 ·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사회갈등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각국의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각 나라의 양성평등 문제의 개선 정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특징을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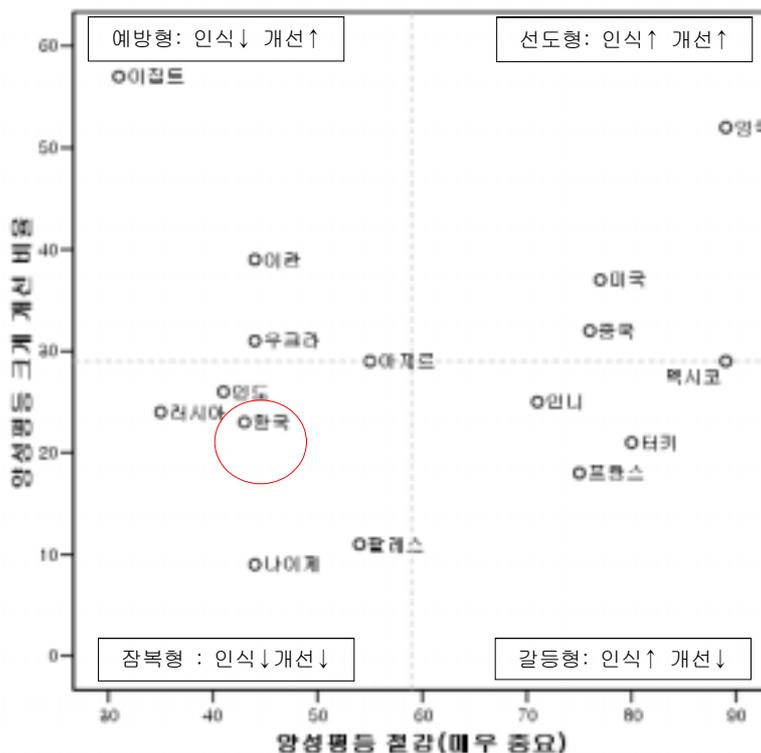


수 있다.

우선, 선도형 유형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비율이 많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이란이나 이집트처럼 국민들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강해지기 전에 현실에서 양성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로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는 유형이다. 셋째, 남녀평등 문제를 매우 중시하지만 현실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갈등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에는 양성 불평등 문제가 직접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실제 체감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개선된 정도도 미약하다는 인식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향후 어느 유형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여성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변질 수도 상당부분 예방되거나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정도에서는 불만이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아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잠복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남녀 권리의 불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해 전체 응답국 평균 29%에 못 미쳤고 양성 불평등 문제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젠더 아젠다가 표면위로 부상하지 않는 잠복형 인식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 양성평등 인식과 각 국 양성평등 개선도 평가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주1. 기준선은 17개국 각국 응답비율 평균 : 매우 중요 59%, 크게 개선 29%

주2. 여기서 '높다', '낮다'는 평가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균'보다 높다 혹은 낮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주제2.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약한 이유

“남성 · 고연령층 · 저학력층” 양성평등 비토계층 때문인가?

여성은 양성평등에 얼마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 양성평등 문제, 중요성 절감도 인종차별 문제에 비해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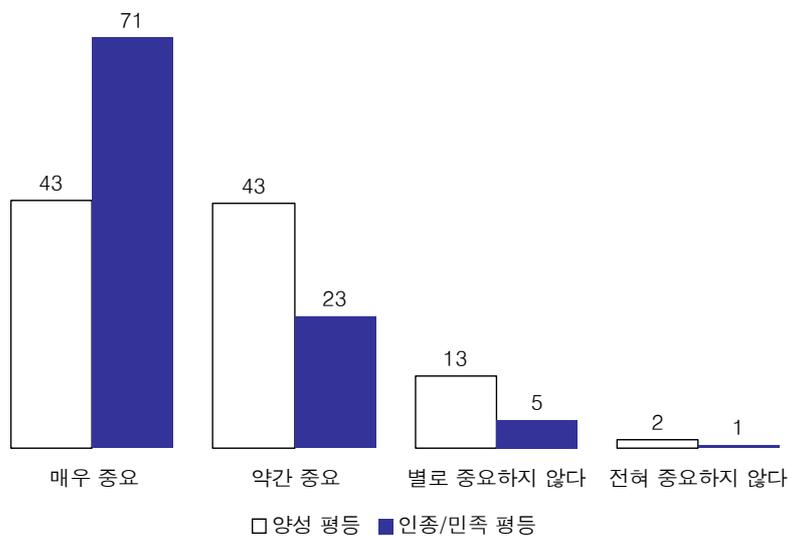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여성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큰 국민적 저항 없이 초미니 부처로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양성평등 인식이 주요 정치 아젠다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 양성평등의 젠더 아젠다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인권 이슈에 대한 여론과 비교해봐도 쉽게 확인된다. 인종/민족 차이를 떠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려 71%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23%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양성평등의 문제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3%, 약간 중요하다는 응답은 43%로서 절박하게 인식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그림1]

□ 기존 속설의 오류 : 남성 · 고연령 · 저학력 양성평등에 둔감하다는 가설 맞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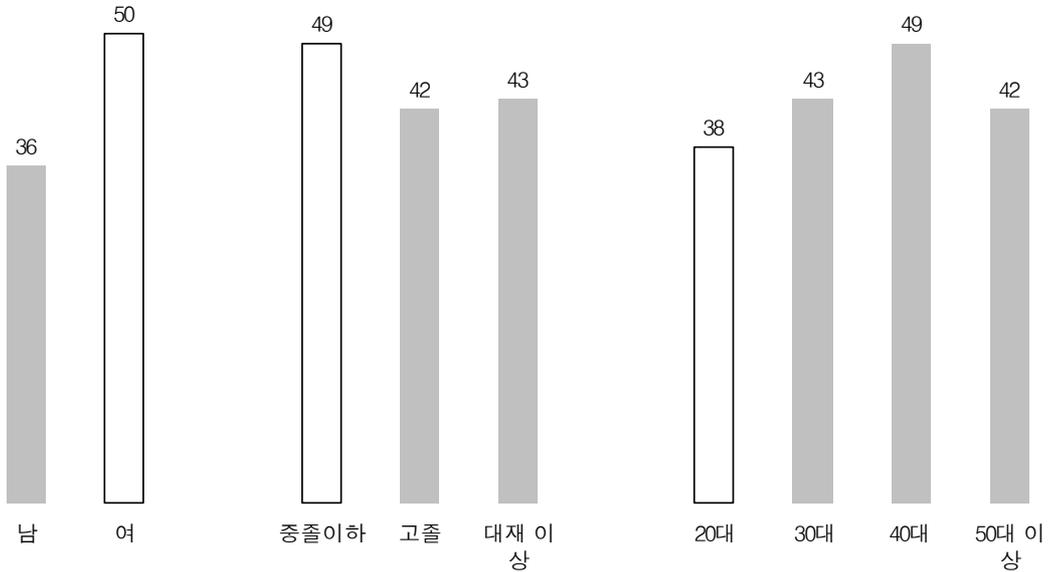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를 남성, 고연령 층, 저학력 층이라는 3대 여성인권 비토층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남성일수록, 가부장 문화에 젖어 있는 고연령 층일수록, 인권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학력층일수록 양성평등에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는 역시 남자는 양성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여자는 50%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성별 차이에 대한 속설은 쉽게 확인된다. 반면 고연령층과 저학력층이 양성평등의 비토층이라는 기존인식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오히려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남녀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고, 대재 이상의 경우 43%로 이에 못 미쳤다. 세대별로도 오히려 가장 젊은 20대가 38%만이 남녀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가장 높은 49%, 50대 이상의 응답층에서도 43%로 높았다.[그림2]

[그림1] 양성평등과 인종/민족평등 문제 중요성 인식도(%)





[그림2] 성 · 학력 · 연령대별 양성평등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응답비율(%)



□ 여성의 양성평등의식 세대별로 다르다. 여성끼리의 인식편차도 크다

- 여성의 50%만이 양성평등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남성 37%)
- 학력별로 중졸여성 57%과 대재 이상 여성(50%)과 고졸 여성(46%)간 인식 격차 존재
- 세대별로 40대 여성(59%)과 50대 이상 여성(40%) 사이의 인식격차 크게 나타나, 20대, 30대 여성 48~49%는 중간에 위치

이번 조사결과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인식 차이 못지않게 같은 남성 끼리 또는 같은 여성끼리도 적지 않은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남성들만 보면 대재 이상의 고학력(38%)일수록 중졸이하 층(25%)에 비해 남녀평등문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존의 패턴이 확인된다.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오히려 중졸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57%)이 대졸(50%) 혹은 고졸 여성(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끼리는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과 고졸 이상 학력의 여성 사이에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최근 여성에게 확대되는 경제적 기회가 주로 고졸 혹은 대재 이상의 여성에게 한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남성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20대와 30대 이상의 세대 사이에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느끼는 온도차가 나타난다. 오히려 젊은 20대에서는 28% 만이 응답자들이 남녀평등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30대 이상의 경우 37~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들끼리도 과거처럼 젊은 여성은 평등의식을, 나이 든 여성은 가부장질서를 수용하는 식의 단순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내에서는 젊은 세대와 고연령층 간의 세대 갈등보다 오히려 40대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간의 인식격차가 근 20% 가까이 벌어졌다. 40대의 57%가 양성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30~50대 이상의 연령층과 비슷한 40% 수준에 머물렀다. 40대 여성이 가장 여성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성년기에 접어든 70년대-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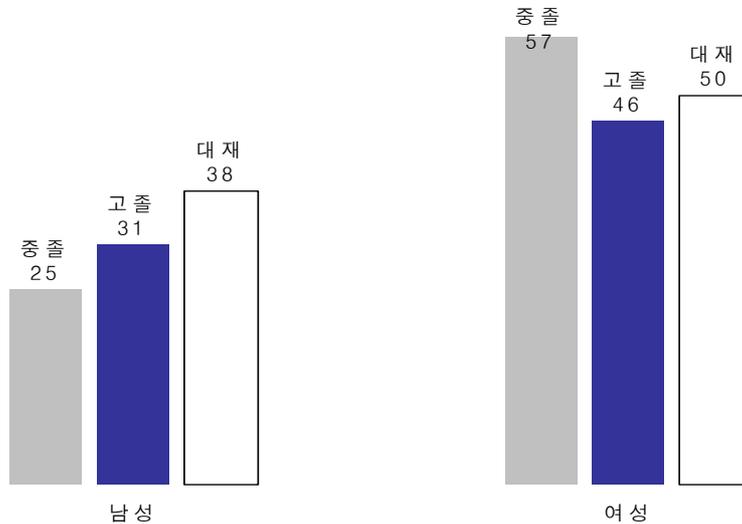


에는 이미 남녀 평등관이 확산되면서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상당 수의 여성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되었지만 취업기회나 경제적 보상차원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다. 양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보다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적 특징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림3].[그림4].

□ 성(性) 집단 내부 집단/계층별로 정교한 대책 시급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내부의 사회적 소속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 다른 복잡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특히 남녀간의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남성 내부, 여성 내부 집단 사이의 인식을 수렴하기 위한 보다 세분화된 문제 진단과 맞춤형 처방이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성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의 시각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3] 성 차이에 따른 학력별 양성평등 중요성 인식(매우 중요하다)(%)



[그림4] 성 차이에 따른 연령별 양성평등 중요성 인식(매우 중요하다)(%)

